

편의점 · 화장품업체 이색 협업

유명 캐릭터 · 삽화 등 디자이너들과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감각적인 제품 인기

소비자들의 취향에 빠르게 반응하는 화장품업체와 편의점에서도 협업 열풍이 불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명 캐릭터나 삽화, 디자이너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감각적인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져 매출에 곧바로 반영되고 있다.

이런 탓에 뷰티, 편의점 업계도 컬래버레이션 열풍은 피해갈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과 매년 컬렉션 제품을 내놓는 아모레퍼시픽 헤리는 이번 시즌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에릭 지리아와 함께 협업한 제품을 선보였다.

컬렉션은 여자가 가장 아끼는 화장품인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헤리는 이선빈과 걸그룹 윈터걸스의 예은과 헤림 카라 한승연, 애프터스

쿨 리지 가수 솔비가 참석한 가운데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10일 빌리프 제품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 슈퍼 픽션의 디자인을 적용한 빌리프X슈퍼 픽션 에디션 2종을 출시했다. 스캇 프레디, 닉 3명의 캐릭터가 아쿠아 슈트를 입고 축축함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 제품 디자인에 담겼다.

LG생활건강 비온드 역시 지난달 가수 '육상달빛'과 협업한 비온드X육상달빛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

위로와 공감을 전달하는 가사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육상달빛의 가사를 재미있게 개사한 무공해 메시지 캘리그래피에 예코 일러스트레이터 미야차로의 디자인을 적용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에디션은 비온드의 대표 수분라

인 '피토 아쿠아'와 인기 바디 라인 '딤모이스처' 제품에 적용됐다.

한지민 비온드 마케팅 담당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제품을 출시하고 싶어 육상달빛과 협업했다"며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감성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경은 10일 북면가왕 가면을 디자인해 유명세를 탄 황재근 패션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북면 마스크팩'을 출시했다.

'앙금한 캣츠족 촉촉수분', '청순가련 코스모스 매끈파우', '달콤살벌 파인애플 산뜻정화', '꽃미인 꽃게 영양촉촉', '블링블링 생다이어 수분폭탄', '미성어린 클레오파트라 탱탱탄력' 등의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뉴시스

“지난 10년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액 1조원 추정”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자료 분석

지난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산림 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10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액 1조원”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액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산소공급, 열섬완화 및 산사태방지 등) 피해를 포함해

약 1조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액은 같은 기간 84억원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목재가 55억5000만원, 송이가 18억7000만원, 잣이 1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산림공익기능 피해액은 1조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된 총 방제예산만 해도 53억 5000만원, 연평균 76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됐지만 이는 실제 같은 기간 발생한 피해액의 10.4%의 수준이었다.

산림청은 2057억원의 피해를 본 지난 2013년에 708억원을 방제 예산으로 배정받았지만 4억1000만원을 불용했다.

지난해 역시 988억원을 받았으나 2억3000만원을 불용했고, 169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014년도에는 846억원을 받아 1억원을 불용하고 1708억원의 피해를 냈다.

황 의원은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지금의 예산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힘들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및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산림청, 산사태 발생예측 적중률 40% 그쳐... 시스템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원주 의원, 산림청 국정감사서 주장

산사태 예방과 관련한 예측정보시스템 적중률이 4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원주 의원은 10일 산림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사태 방지 대책이 흙, 모래, 자갈 등의 이동을 막는 사방사업에만 치중돼 있다”며 예측정보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사태는 대개 폭우나 진동 때문에 흙 입자의 결속력이 약해질 때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본격적인 산사태예방대책이 수립됐다.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으로 “집중호우의 영향 뿐만 아니라 인공사설물과, 주민

에게 신속하게 관련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정기관의 대처미흡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산사태 방지 정책은 주로 사방법, 계류보전 등 구조물 대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산사태예방 정책이 시행된 2013년부터 산사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방법’, ‘계류보전’ 사업예산의 집행률은 100%에 달했다

/뉴시스

“훌륭한 비행꿈나무 되어주길”

이스타항공, 안지현 부기장
중학생 꿈나무 멘토 되어주기

“하늘을 나는 멋진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제 꿈을 향해 도전할게요.”

서전주중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예슬, 이가연 학생은 지난 8일 이스타항공 운항본부에 있는 서울 사무실에서 B-737NG 조종사인 안지현 부기장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되고 싶은 두 중학생들은 안 부기장에게 꿈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부기장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훌륭한 비행꿈나무로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 중학생에게 멘토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이날의 뜻 깊은 만남은 전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LCC로 성장한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회장의 주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얼마 전 이 회장은 신예슬 학생으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신예슬 학생은 자신의 꿈을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진로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회장의 연락처를 받아서 용기를 내 조종사가 꿈이라며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특히 이상직 회장이 맨손으로 샐러맨에서 시작해서 기업을 이루고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기사를 보면서 LCC항공의 조종사가 되기 위해 실제 조종사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문자였다.


중학생들로부터 뜻밖의 문자를 받은 이 회장은 직접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에게 여성 조종사와의 인터뷰 일정을 잡도록 전달하면서 이날의 만남이 이뤄지게 됐다.

두 중학생은 안 부기장과 함께 인터뷰를 마치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훈련 시설인 FTIX(비행 훈련장치 / Flight Training Device)를 방문해 직접 비행조종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신예슬 학생은 “전북에 항공사를 설립해 많은 사람들에게 항공여행의 기회를 넓혀 준 이 회장을 뵈는 영광과 동시에 감동도 받았다. 하늘을 나는 꿈을 갖게 됐다”면서 “꼭 여성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안지현 부기장 역시 “이스타항공은 창업자인 이상직 회장의 설립정신을 이어 항공시장의 독과점을 깨고 LCC 시장을 넓혀 많은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 LCC의 위상을 높인 선두주자”라며 “(두 학생이) 꼭 여성 조종사가 되어 함께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개발공, 임대주택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최초 시행한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임대주택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전북개발공사는 10일 신한카드사와 이시스 엔터프라이즈 등과 함께 임대료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도입 업무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들 세 기관은 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위해 11월까지 전산 수납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12월 신한카드사를 통해 입주민들의 카드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임대료 신용카드납부서비스를 시행기로 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임대료 체납도 줄어 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고 지방공기업으로서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우정청 “등기도 우체통으로”

전북우정청이 등기도 우체통에 넣어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우체국에서 등기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구매해 우표처럼 붙이면 우체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한 선납등기라벨 시범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등기우편물을 부치려면 우체국 업무시간에 가야만 했었다. 이제는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우체국에 가지 않고 우체통에 넣기만 해도 등기우편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우체통에 넣은 등기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한 등기우편물과 동일하게 인터넷우체국에서 우편물의 현재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를 남기면 발송인은 등기우편물의 ‘접수상황’과 ‘배달결과’를 알 수 있고 수취인은 ‘배달시간 사전 안내’ 정보를 SMS로 받을 수 있다.

또 집배원이 우체통 수거 후 창구직원이 접수 처리한 시점부터 등기우편물로 취급되며 이 때부터 손실·훼손 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무인접수기, 방문접수 및 우체국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민형 기자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큰 인기

2년5개월만에 1000만건 돌파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O2O서비스로 선보인 사이렌 오더가 런칭 이후 2년5개월 만에 1000만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이렌 오더는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국내에 선보였다.

스타벅스가 1000만건의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주문수는 3만4000건으로 2014년 런칭 당시 일 평균 2000건에 대비해 17배나 이용률이 증가했다. 사이렌 오더 이용 고객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78대22이었으며, 연령대에서는 20대가

41%, 30대가 45%로 디지털 플랫폼에 친숙한 20~30 세대가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하루 중 사이렌 오더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9시와 점심식사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였으며, 해당 시간 동안 전체 주문 중 사이렌 오더 이용 비율은 평균 22%로 나타났다. 사이렌 오더로 주문 횟수가 가장 많은 매장으로는 2030 세대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학원 및 쇼핑가 지역,에 위치한 강남역점, 코엑스몰점, 강남대점, 신대점, 홍대역점, 타임스퀘어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